

로마, 비전을 확립하다 - 번호 12

예언의 세 가지 적용: 멸망의 가증한 것과 말세에 도망하라는 경고

Jeff Pippenger

2024-08-31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은 서로 다른 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하라는 표징이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서기 66년에 로마 군대의 군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을 보았을 때 도피했다. 5세기 말과 6세기 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불법의 사람을 보았을 때 광야로 도피했다. 1888년에는 블레어 상원의원이 미국 의회에 일련의 일요일법을 제출했다. 그 법안들은 블레어 법안이라 불렸으며, 일요일을 국가적 예배일로 지정하려는 시도였다. 일요일 예배는 짐승의 표, 곧 교황권의 표이며, 미국 헌법은 미국 시민들에게 국가 종교를 강요하여 그것을 충성의 시험으로 삼는 일을 정면으로 반대한다.

미국을 현대의 로마로 동일시하는 것과 관련된 결함 있는 적용에서는 바로 이 사실이 빠져 있다. 예언의 삼중적 적용에는 그 적용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다. 그 규칙들에 따르면, 세 번째 성취의 예언적 특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취의 예언적 특성을 두 번째 성취의 예언적 특성과 결합해야 한다.

도피하라는 경고는 다가오는 박해로부터 도피하라는 경고이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그 박해는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이었다. 그 다가오는 박해의 경고 표지는 주후 66년에 주어졌다. 5세기 말과 6세기 초에 있었던 도피 경고는 이교 로마를 대표하던 예언적 버가모의 배교를 인식하는 것으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 확인되었다. 먼저 배교가 있어야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죄의 사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538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속에서 억제하고 있던, 곧 바울의 표현으로는 'withholdeth' 하던 이교 로마가 제거되었고, 버가모의 배교가 일어나 도피의 표지가 나타나 신실한 이들에게 교황권 교회의 교제에서 분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538년에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교황권이 일요일 법령을 통과시켰고, 교황권의 1,260년 박해가 시작되었다.

처음 두 증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도피하라는 경고의 세 번째 성취가 실제 박해에 앞섰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루살렘의 파괴는 서기 66년에 케스티우스의 포위전이 시작된 때로부터 정확히 3년 반 후에 일어났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들은 티투스가 일으킨 두 번째 포위전, 곧 성전과 도시의 파괴로 끝난 참상을 앞두고 미리 도피할 수 있었다. 538년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교황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예언적으로 광야로 도피했는데, 그것은 영적 예루살렘의 파괴를 상징한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흔두 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하리라. 요한계시록 11:2, 3.

도피하라는 경고의 두 가지 예증 모두에서, 경고는 박해에 앞서 주어지며, 박해는 로마—이교든 교황권이든—가 예루살렘—문자적이든 영적이든—을 짓밟는 것으로

묘사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 도피하라는 경고는 1888년의 블레어 법안이었다. 이교 로마의 역사에서의 첫 성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해야 했고, 교황 로마의 성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광야로 피신했다. 재림교의 경우 그 경고는 시골로 피하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마음을 붙이거나 그곳에 재물을 쌓아 둘 때가 아니다. 머지않아, 초대 제자들처럼 우리는 황량하고 외딴 곳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포위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피의 신호였던 것처럼, 우리 나라가 교황의 안식일을 강요하는 칙령으로 권세를 행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대도시들을 떠나야 하며, 이어 산중의 외딴 곳에 있는 은거처로 들어가기 위해 소도시들까지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증언, 5권, 464쪽.

"교황의 안식일을 강제로 시행하는 칙령에서 우리나라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은, 마가복음의 말씀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었을 때 성취되었다. 1888년, 미국 의회는 헌법의 근본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었고, 그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해야 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리스도인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고, 그의 말씀을 믿은 모든 이들은 약속된 표적을 지켜보았다. . .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곧 요단강 건너편 페레아 땅의 펠라라는 도시로 피신했다." 대쟁투, 30.

피하라는 경고 가운데 첫 번째 징조의 예언적 특징은 세 번째이자 최종적인 성취를 나타낸다. 때때로 그 예언적 특징들은 세 번째 성취 안에서 이중 성취를 낳는다. 그 한 예가 세 명의 엘리야이다. 엘리야가 이세벨과 아합, 바알의 선지자들과 맞섰던 모형과, 둘째 엘리야인 세레 요한이 헤로디아, 헤롯, 살로메와 맞섰던 모형이 결합되어, 삼중 적용의 세 번째이자 최종 성취는 항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며, 그 마지막 때에 엘리야와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의 두 부류를 대표한다는 것을 확증한다. 엘리야가 대표하는 한 부류는 죽지 않고, 요한이 대표하는 다른 부류는 죽는다. 이 두 부류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죽지 않는 십사만 사천과 죽는 큰 무리로도 대표된다.

세 바벨론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에서 공통된 요소는 첫 번째 바벨론은 니므롯으로 대표되지만, 두 번째 바벨론은 그 첫째와 마지막 왕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로 대표된다는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자들을, 벨사살은 바벨론에서 멸망할 자들을 대표한다.

마지막 때에 성경 예언의 주제가 되는 일요일 법령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곧 미국에서 시행될 일요일 법령이고, 둘째는 온 세상에 강요되는 일요일 법령이다. 이 두 일요일 법령은 이교 로마의 일요일 법령과 교황 로마의 일요일 법령으로 예표되었다. 서기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시행했으며, 이어 538년에 교황 로마의 일요일 법령이 있었다. 이교 로마는 미국을 예표하는 몇 가지 예언적 모형들 가운데 하나이며, 321년의 일요일 법령은 곧 미국에서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538년에 시행된 교황 로마의 일요일 법령은 온 세상에 강요되는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강도들로 미국이 예표된다는 잘못된 견해는, 미국에서 곧 시행될 일요일 법령을 근거로 삼아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 미국이 현대 로마임을 입증한다고 주장하려 하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에 의해 세상의 모든 나라에 강요되는 또 다른 일요일 법령이 있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만일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 미국을 현대 로마로 식별한다면, 전 세계적 일요일 법령은 무엇을 식별하는가? 세 가지 '로마'는 세 겹으로 구성된 현대 로마가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일요일 법령을 집행할 것임을 드러낸다. 첫째는 미국에서이며 321년 콘스탄티누스의 일요일 법령으로 예표되었고, 둘째는 전 세계로서 538년의 교황권 일요일 법령으로 예표되었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예언의 삼중 적용이라는 맥락에서 사용하여 그 일요일 법령이 누가 현대 로마인지를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가 확립한 예언적 특성들을 무시하는 일이다. 말세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일요일 법령이 있으며, 그 어느 것도 '백성을 강탈하는 자들이 미국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다. 현재 그러하고 있듯이 사사로운 해석을 지지하기 위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증언을 왜곡할 때, 그러한 사사로운 해석을 지지하려는 이들이 표상과 반표상을 이해하지 못함이 드러난다.

이교 로마는 미국의 모형이며, 교황 로마는 현대 로마를 예표한다. 예언의 삼중 적용을 이렇게 오용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모형과 반모형'의 맥락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실패는 예언의 삼중 적용의 맥락에서 제시된 대로 '멸망의 가증한 것'을 정의하지 못한 데 있다.

서기 66년부터 70년까지 두 명의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케스티우스와 티투스 두 장군 모두 포위로 전쟁을 시작했지만, 잠시 포위를 풀고 물러난 것은 한 사람뿐이었고, 그것이 섭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할 수 있게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피하라는 경고를 알아차린 것은 케스티우스가 이끈 첫 번째 포위 때였다. 서기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전쟁을 이어 갔을 때, 그는 포위로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예수의 경고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째는 도피의 표징이고, 그 다음은 박해이다. 5세기와 6세기에 그 경고가 성취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로마 교회와 서기 538년 이전에 분리되었고, 그 후 박해가 시작되었다.

바울은 고대 이스라엘의 모든 기록된 역사가 말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고, 그 모든 역사들이 예표였다고 매우 분명히 한다. 다만 이 진리에 대한 그의 고전적 제시에서는 '예표'를 뜻하는 그리스어 'typos'가 'ensamples'로 번역되어 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

이 진리의 맥락을 설정하기 위해 바울이 사용하는 제10장의 기록들은 고대 이스라엘의 의로운 행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악한 것을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하였느니라. 또한 우리도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음행한 것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느니라. 또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5-9.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와 불의를 모두 기록한 것이지만, 어느 쪽의 기록이든 그 역사는 말세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모형이다. 1888년 미니애폴리스에서의 반역의 역사는, 재림교 역사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하든, 불의의 기록이다. 그 반역은 너무나 심각하여 엘렌 화이트는 집회를 떠나기로 결심했으나, 천사가 모세의 역사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에 상응하는 이 반역을 머물러 기록하는 것이 그녀의 책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남아 있었다. 그 집회에서 요한계시록 18장의 능력 있는 천사가 강림했지만, 그가 가져온 기별은 거절되었다.

그 역사는 2001년 9월 11일, 뉴욕시의 거대한 건물들이 무너진 사건을 예표했다. 그 역사에는 블레어 상원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던 최초의 일요일 법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일요일을 국가적 예배의 날로 강제하려는 노력은 실패했지만, 그것은 말세를 예표한 거룩한 역사에 속한 일이었다. 블레어 상원의원의 그 법안은 도시에서 도피하라는 경고였다. 1888년 이전에 화이트 자매가 도시 밖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을 말했을 때, 그녀는 미래 시제로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골로 이주해야 할 가까운 장래의 때를 가리켰다. 1888년 이후에는, 화이트 자매가 시골 생활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마다, 이미 시골에 있어야 할 때가 도래했다는 맥락에서 그녀의 권면을 제시했다. 1888년의 블레어 법안은, 누가의 표현대로,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선 일요일 준수 강제의 표징이었다. 일요일 준수 강제는 미합중국 의회로 가져와서는 안 되었는데, 그것은 헌법의 근본 원칙을 부정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1888년의 역사는 2001년 9월 11일에 시작된 예언적 역사를 예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1888년의 블레어 법안은 2001년의 애국법을 예표했다. 그것은 짐승의 표가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 주어진 경고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2001년 9월 11일 이후에는 도시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피하도록 인도한 예언적 포위였다. 그리고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의 일요일법령으로 대표되듯이, 말세의 예언적 모형에는 두 가지 일요일법령이 있으며, 두 일요일법령 모두에 앞서 도피하라는 경고가 주어진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임을 자처하는 이들은 머지않아 임할 일요일법에 앞서 도시를 떠나 시골로 피하라는 표징으로 애국법을 예언적으로 인식해야 했다. 바로 그 동일한 일요일법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양 무리에게는 모든 나라에 내려질 일요일 준수의 강제 시행에 앞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표징이었다.

"종교 자유의 땅인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에 강제를 가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강요할 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이끌릴 것이다." 증언, 제6권, 18.

세 명의 엘리야의 삼중 적용이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을 확증하듯, 로마의 삼중 적용은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일요일 법령이 있음을 밝힌다. 미국이 '네 백성의 강도들'이며, 따라서 미국의 예언적 역할이 그 이상을 확증한다고

주장하려는 이들은, 미국에서 임박한 일요일 법령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박해를 피하여 도망하라고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실 때 지목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하라는 경고 표지인 포위와, 일요일 법령의 실제 시행으로 말세의 박해가 시작됨을 나타내는 두 번째 포위를 구분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두 증인을 근거로 확립된, 말세에 예언을 성취할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일요일 법령이 존재한다는 구분을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미국에서 임박한 일요일 법령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표현된 경고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렇지만 그들이 정의하는 방식은 아니다.

미국의 일요일 법령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무리에게 그녀와의 교제에서도 피하라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나라에 강제 시행될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에 대한 경고이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전례를 따를 것이다. 미국이 앞장서지만, 같은 위기가 전 세계 곳곳의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증언, 제6권, 395.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일요일 법령이 예언적 환상을 정립하는 상징으로서 미국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도피하라고 주신 경고의 맥락에서는 그 일요일 법령이 열한시 일꾼들에게 바벨론에서 도피하라는 전 세계적인 경고를 의미한다.

화이트 자매가 피하라는 경고를 언급할 때, 그녀는 온 세상을 휩쓰는 일요일법 문제를 다룹니다. 그 운동은 미국의 일요일법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국의 일요일법이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경고임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며 교황제도를 강제하는 칙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는 의로움과 완전히 단절하게 될 것이다. 개신교가 깊은 간극을 넘어 손을 뻗어 로마 권세의 손을 붙잡고, 심연 너머로 손을 뻗어 심령주의와 손을 맞잡으며, 이 삼중 연합의 영향 아래 우리나라가 개신교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정부로서의 헌법의 모든 원칙을 저버리고, 교황권의 거짓과 미혹의 전파를 위한 길을 터줄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이르렀고 끝이 가까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의 접근이 예루살렘의 임박한 파괴를 제자들에게 알리는 표징이었던 것처럼, 이 배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에 이르렀고, 우리 나라의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찼으며, 자비의 천사가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한다는 표징이 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들이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묘사한 그 환난과 고통의 장면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신실하나 박해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올라간다. 그리고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바다의 무덤에서, 산의 동굴에서, 수도원의 묘실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들이 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그들에게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증언, 제5권, 451쪽.

화이트 자매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을 지적하며, 그것을 미국의 은혜의 시기가 끝났다는 '표징'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부터 미가엘이 일어서고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까지의 한 기간이 있다. 그때가 마감되면, '자비의 천사가 떠난다.'

